

## 서북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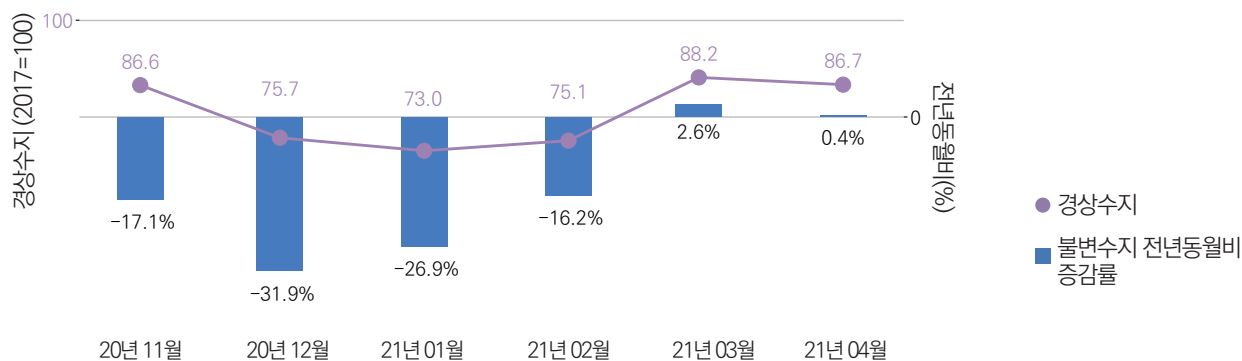
### •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.4% 상승, 그러나 11개월 연속 서울 권역 중 소비경기지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지속

- 전년동월대비 0.4% = 소매업의 기여도 +3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2.7%p  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[관련설명은 부록의 기여도 참조](#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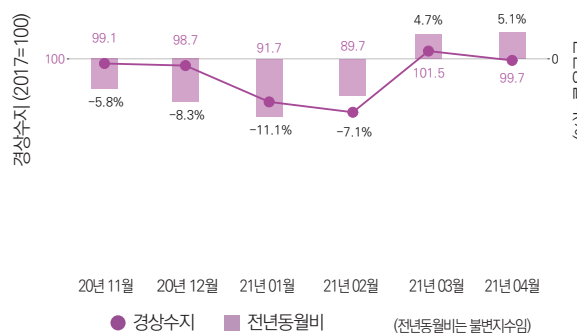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.1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6.6% 하락

- 지난 3월 오랜만에 회복세를 나타냈던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4월 들어 다시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(전년동월대비) 내림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 수준(0.4%)으로 주춤. 소매업 세부 업종 대부분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점포소매(26.9%), 의복·섬유·신발(5.4%), 기타상품(4.6%) 등 일부 업종의 매출만 (전년동월대비) 증가
  - 4월 서북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증가
  - 반면 연료, 문화·오락·여가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서북권의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형태로 세부 업종 중 숙박(16.5%)에서만 (전년동월대비) 매출 증가를 나타냈으며, 음식점(-7.8%)과 주점·커피전문점(-7.5%)의 부진은 지속되고 내림폭도 전월보다 다소 확대
  - 4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. 반면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순으로 소비감소

#### | 서북권 소비경기지수



#### |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# |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